

# Corsetry 제작법 비교연구

박 상 희

안양과학대학 패션스타일리스트학과 겸임교수

## A Comparative Study of Corsetry Methods

Sang-Hee Park

Additional Concurrent, Dept. Fashion Stylist, Anyang Technical College

(2008. 2. 22 투고)

### ABSTRACT

The aim of the study was to look into the construction methods of historical corsetry and compare them with the construction methods of corsetry today. Through a comparative study, it was concluded that the design, material, sewing and functions of corsetry of a certain period are sum of the clothing techniques and fashion of the time.

Corset was first appeared at the end of the 16th century. It has been through many changes in terms of items, materials, patterns, sewing methods in order to make right silhouettes of the time. Now corsetry has been developed into various items such as waist nipper, all-in-one, nipper bra, and girdle. All these items have a common purpose, that is to improve the body shape.

The corsetry of the past was made of non stretchable materials, so they used to restrict body movements, and required individual fitting several times. Due to the development of thin durable stretchable fabrics, functional bones, and advanced sewing machines, construction methods of seam, hem and opening are simplified compare to their predecessors. Consequently corsetry became less weighted, easy to wear, easy to wash and easy to mass produce. Yet they have consistency in sewing techniques such as using bones or wires to support bodice shape, using durable twill fabrics over plain for attractive body shapes.

Key words: corsetry(코르셋트리), waist nipper(웨이스트니퍼), all-in-one(올인원), nipper bra(니퍼브라)

## I. 서론

속옷은 겉옷의 안쪽에 신체에 가장 가까이 입혀지는 옷으로 신체의 청결과 보온, 보호 등의 위생적인 기능과 체형의 결점을 보완해주는 기능, 겉옷을 보호하고 몸매를 아름답게 정형하는 역할을 한다. 그 중 코르셋(corset)은 여성의 속옷 중 가장 오랫동안 착용되어져 왔으며 16세기부터 현재까지 그 시대 여성의 이상적인 체형과 유행 경향에 맞추어 그 형태와 소재, 제작법이 변화되어 왔다.

속옷에 관한 연구는 역사적 변천이나 종류의 나열, 디자인 전개 등이 대부분이었으며 속옷의 패턴이나 구성 방법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sup>1)</sup>. 현대의 코르셋류는 과거와 달리 다양한 원부자재의 개발로 인해 그 제작방법이 간소화되었지만 현재의 보정 속옷의 제작법의 근간은 과거 르네상스시대에서 이어진 코르셋의 제작방법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거 16세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변화된 코르셋 제작방법과 현재 판매되는 보정용 속옷인 롱브라(long-Bra), 웨이스트니퍼(waist nipper)와 올인원(all-in-one)의 구성방법을 비교하여 그 변화와 차이에 대해 고찰하고자한다.

## II. 이론적 배경

여성들의 신체를 압박하고 체형을 보정하는 속옷으로서 코르셋 형태는 16세기 후반에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 시기에는 형태에 따라 바스킨(basquine), 코르비케(corpspigué)라 불리어졌으며 코르셋은 18세기 이후 영국에서 불어졌다<sup>2)</sup>. 바스킨은 풀 먹인 린넨 천을 두 겹으로 하여 그 사이에 나무뿌리나 고래수염, 강철 또는 상아 등을 사용한 얇은 패드인 바스크(basque/busck)를 덧대 딱딱하게 부풀린 것이며 코르비케는 두 겹 이상의 린넨을 누비고 바스크의 딱딱함을 보강하여 바스킨 보다 더 강하게 몸을 조일 수 있도록 재료와 구성법이 발달한 것이다.

따라서 <표 1>과 같이 16세기에 등장한 코르셋은 가슴과 허리, 배를 최대한 조이는 형태로 바스킨 또는 코르비케로 불리워지고 점차 17세기 후반에 이르

러서는 곡선과 직선의 고래수염을 이용해 배와 등을 판판하게 하고 가슴을 풍만하게 보이는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18세기에는 허리를 가늘게 보이는 효과와 더불어 입어서 편안함을 겸비하는 구성 기술이 발달하였으며 그 명칭도 코르셋과 스테이로 불리워졌다. 18세기까지 코르셋은 현대의 것과 달리 가슴의 컵 모양을 만들지 않았고 단지 가슴을 올리고 평평하게 하여 가는 허리를 강조하고 코르셋이 아래로 쳐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어깨끈으로 고정하였다. 19세기 후반에 들어서서 가슴 컵을 따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거시트(gussets)를 사용하여 가슴의 볼륨감을 살린 형태와 가슴 바로 아래에서 가슴을 받쳐주어 슈미즈로 가슴을 풍만하게 보이도록 하는 현대의 웨이스트 니퍼와 같은 코르셋 형태도 나타났다.

나폴레옹 1세 시대에는 하이웨이스트 코르셋이 등장하였고 이는 신축성이 있는 능직의 면과 고래수염으로 만들어졌다. 1870년대 벅슬 스타일 이 유행하던 시기에는 가슴부분에 거시트를 붙여 아우어 글라스 실루엣을 강조하였고 19세기 후반에는 코르셋이 더욱 화려해져 새틴으로 제작되고 실크 또는 레이스, 리본 트리밍으로 가장자리를 장식하기도 하였으며 타이트 레이싱(tight lacing)에 재미허리를 연출하였다. 20세기 초반에는 가슴에서 허벅지 중간까지 덮는 긴 코르셋이 유행하였다. 1947년 크리스찬 디올 의 뉴 룩은 여성스런 곡선미를 부활시켜 코르셋의 재등장과 함께 부풀린 가슴과 가는 허리를 강조하였다. 1990년대에 이르러 코르셋은 현대적인 의미로서의 파운데이션의 한 형태로 발달되었으며 과거 코르셋의 목적인 여성을 아름답고 균형 잡힌 몸매로 가꾸어주는 보정속옷으로서 자리 잡았다.

르네상스시대에서 시작된 코르셋은 체형의 결점을 커버하는 파운데이션으로서 브래지어, 웨이스트 니퍼, 올인원, 거들 등으로 분리·발달하게 되었으며 구성 재료 역시 고래수염 대신 신축성이 좋은 신소재로, 고래뼈나 금속, 상아 등과 같은 지지대는 플라스틱 보닝(plastic boning) 등으로 대체되어 만들어졌다. 코르셋의 가슴부분이 분리되어 가슴모양을 정리해주는 브래지어는 짧은 것과 캐미솔 형이 있으며 허리선에서 엉덩이선을 균형 잡히게 하는 것으로 허리와

<표 1> 코르셋의 변화<sup>3)</sup>

시대	명칭	실루엣 및 특징	사용소재
16세기	◦ 바스킨(Basquine) ◦ 꼬르비케(Corps-pique)	◦ 아우어글래스 실루엣 ◦ 가슴, 허리, 배까지 조이는 형태	◦ 뻣뻣한 직물
17세기	◦ 꼬르바렌느(Corps-baleine)	◦ 배와 등은 평편하고 가슴은 풍만함 ◦ 여밈은 주로 뒤쪽 ◦ 어깨끈이 있고 옆선은 하나로 연결	◦ 고래수염 ◦ 뻣뻣한 직물
18세기	◦ 코르셋(Corset, 영) ◦ 스테이(Stay, 불)	◦ 평편하고 좁은 등 ◦ 허리주위에 드림(tabs)이 달림 ◦ 어깨끈은 뒤판에 연결	◦ 고래뼈, 금속 ◦ 갈대, 코드
19세기	◦ 스테이(stay) ◦ 코르셋(Corset)	◦ 가슴 볼륨을 살려 S라인이 시작됨 ◦ 가슴과 힙에 무릎 대어 곡선 강조 ◦ 다양한 여밈장치 개발 ◦ 어깨끈이 없는 형태 나타남	◦ 금속뼈대 ◦ 금속아일렛 ◦ 탄성직물사용 ◦ 니트직물
20세기초	◦ 콜셋렛트(Corselet) ◦ 코르셋(corset)	◦ S라인과 스트레이트라인 유행 ◦ 가슴과 힙이 분리된 코르셋 ◦ 뼈대없는 코르셋 등장	◦ 지퍼 ◦ 나사뼈대 ◦ 고무직물

<표 2> 시판 Corsetry 제품

아이템	아이템 수	제조업체
웨이스트니퍼: 밴드형	3종	신영와코루
	1종	비비안
웨이스트니퍼: 조끼형	2종	신영와코루
	1종	비비안
올인원: 바디수트형	3종	신영와코루
	1종	비비안
	1종	스킴(수입)
올인원: 원피스형	2종	신영와코루
	2종	비비안
	1종	발렌시아
니퍼브라	1종	아가시아
	1종	누벨마리
	1종	와코루(수입)
	1종	에스케이패션

하체부분의 조이는 거들, 가슴 밑부분부터 골반 윗부분까지 오는 넓은 밴드 형태의 파운데이션으로 허리를 날씬하게 해주기 위해 보정기능성 원단에 지지대를 넣어 허리선을 날씬하게 보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웨이스트 니퍼이다. all-in one은 브래지어, 웨이스트 니퍼, 하의 거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있는 속옷으로 가슴, 허리, 복부와 엉덩이 선을 정리해주어 매끄러운 실루엣을 만들어 준다. 따라서 최근 스킨이나 레깅스, 하이웨이스트 팬츠 등 체형이 드러나

는 스타일의 옷을 입을 때 옷맵시를 살려주는 효과를 준다.<sup>4)</sup>

### Ⅲ. 연구방법

#### 1. 16세기~20세기초 코르세트리(corsetry)의 제작방법 비교

16세기부터 20세기초반까지의 코르셋류에 관한 문

현을 토대로 코르셋의 형태와 재료, 제작방법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문헌에 따라 그 명칭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주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 정리하였다.

## 2. 시판 코르셋류의 제작방법 연구

현재 시판되고 있는 코르셋류를 속옷 브랜드에서 제조, 판매하는 아이템을 중심으로 구입하였으며 그 종류와 수량은 <표 2>에 나타내었다. 코르셋이 현대로 오면서 그 기능과 특성에 따라 변화된 파운데이션 가먼트 중에서 가슴과 허리를 감싸는 올인원, 웨이스트 니퍼, 니퍼브라를 선정하고 이를 구입하여 제작형태와 사용소재, 구성법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코르셋류의 제작과정의 변화과정과 공통점과 차이점등을 분석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고찰

### 1. 16세기~20세기초 코르세트리(corsetry)의 제작방법 비교 결과

#### 1) 16세기의 바스킨 및 코르비케 제작방법

이 시기에는 자세한 제작방법이 나타난 자료는 드물다. 다만 신축성 직물이 없던 시기에 몸판을 바이어스로 재단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초기에는 고래뼈와 같은 심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대에 가면서 그 수요가 늘어났다. 앞 중심은 골선으로 접어 재단을 하되 후에 버스크를 넣을 부분은 잘라내었다. 일반적으로 앞판은 딱딱한 캔버스 천에 잔 홈질로 누벼 감을 뽀뽀하게 하였는데 여밈 부분의 버스크 위치는 홈질을 하지 않는다. 버스크가 캔버스천 사이에 잘 들어가도록 왁스 또는 비누칠 등과 같은 것을 칠했다는 기록이 있다.<sup>5)</sup>

뒤판의 중심은 식서방향으로 재단하여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입고 벗기가 편하고 또한 몸을 조이는데 용이하도록 좌우가 나누어져있다. 후세대의 것과 차이는 앞판과 뒷판이 하나로 연결되어 옆선이 없다는 것이다.

이 시대의 고래뼈는 귀하고 상당히 고가여서 일부

에서는 새의 깃털뼈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내구성이 적어 후에는 완전히 고래뼈가 주가 되었으며 이 시기에는 속옷으로 착용되기보다 로브사이에서 보여지는 겉옷의 일부였다<sup>6)</sup>.

#### 2) 17세기 꼬르바렌즈 제작방법

17세기에는 16세기에 비해 패턴이 정교해지고 고래뼈 등의 심대들을 일정한 가늘기로 쪼개고 끝을 둥글고 부드럽게 하여 착용 시에 착용감을 좋게 하였다. 여성의 신체곡선을 살리기보다 앞판 부분은 뽀뽀하게 하여 가슴을 위로 올려주고 몸을 타이트하게 조이기는 형태를 가진다. 따라서 이 코르셋이 몸에서 흘러내리지 않게 어깨끈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또한 고래뼈 외에도 철재로 된 뼈대도 사용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옆선에서 곡선의 패턴선이 보여 진다.<sup>7)</sup> 심대는 겉감이 아닌 안감에 주로 달았으며 심대의 길이는 옷의 길이보다 약간 짧게 재단하고 겉감은 안쪽에는 심대가 닿는 부분에 한 장 더 덧대어 착용감을 좋게 하였다.<sup>8)</sup>

과거의 것에 비해 형태가 정교해지고 좀 더 딱딱해졌으며 그 위에 화려한 스토마커를 달았다. 앞판과 뒷판이 분리되어있으며 앞을 열어 입고 뒤쪽은 레이스 끈으로 몸통을 조여 착용하였다. 그 위의 스토마커는 코르셋의 오른쪽에만 잔 홈질로 고정하고 코르셋을 여민 후에 스토마커의 왼편을 끈으로 고정하였다.<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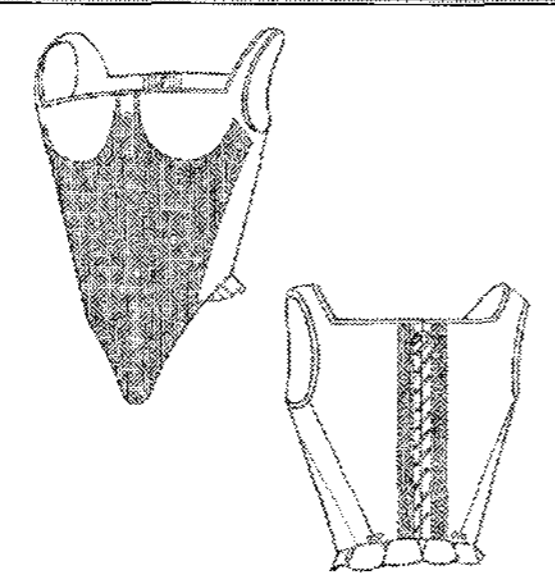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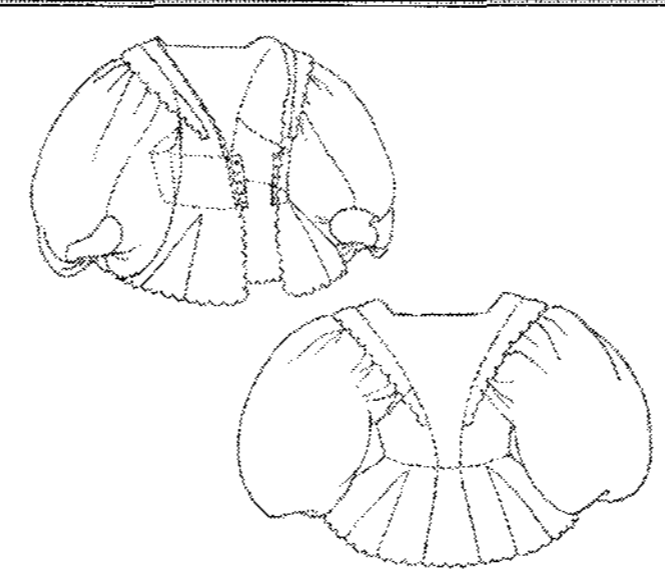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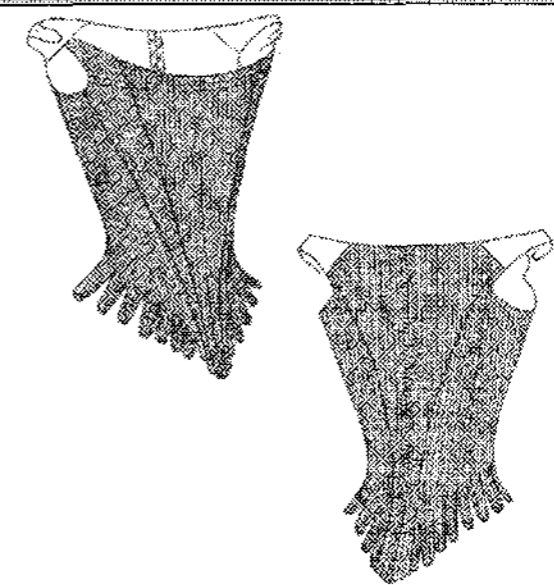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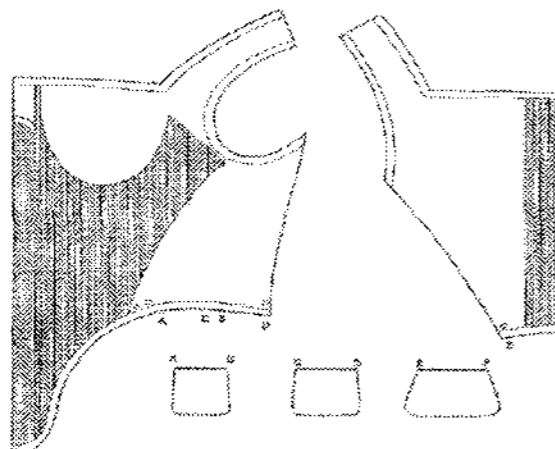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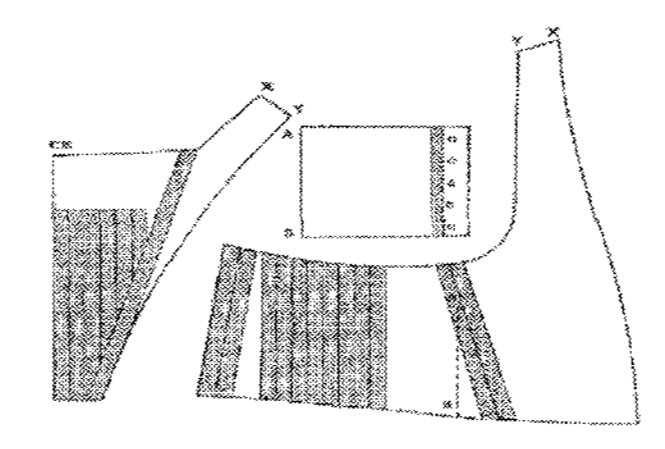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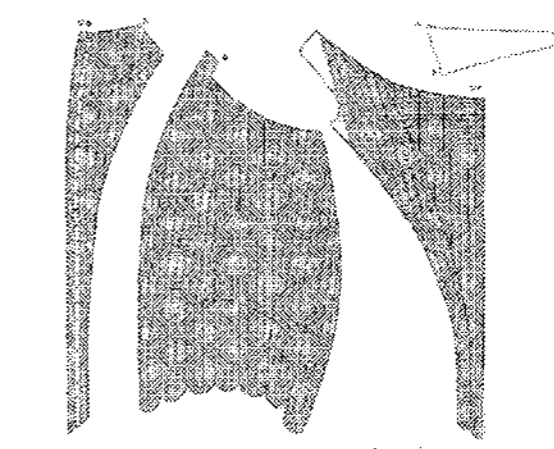
#### 3) 18세기 코르셋 및 스테이 제작방법

전체적으로 코르셋의 길이가 길어져 힙선을 살짝 덮는 수준으로 되었다. 고래뼈와 같은 뼈대들은 몸판은 물론 허리 아래 힙선을 덮는 드림(tab)에도 넣어져 힙선을 살림은 물론 허리를 더욱 가늘게 보이도록 하였다.

바디스는 암홀에서 앞 중심을 향하여 대각선 모양으로 절개되고 옆선은 과거와 달리 직선적인 모양을 하고 길어진 앞판은 스커트 위에 입혀져 겉옷으로 드러나 화려하게 장식된 것이 많았다.

앞뒤판의 기본은 2장의 두꺼운 린넨 또는 캔버스천을 풀과 아교로 좀더 딱딱하게 처리하고 고래뼈로

<표 3> 17세기 corsetry의 특징

	17세기 초기 <sup>10)</sup>	17세기 중기 <sup>11)</sup>	17세기 후기 <sup>12)</sup>
형태			
패턴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겉감: 실크, 안감: 린넨</li> <li>◦ 앞중심에 버스크가 들어가는 공간을 박음질로 만들</li> <li>◦ 겉쪽에 박음질선이 장식</li> <li>◦ 버스크는 나무, 고래뼈 또는 뿔 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르셋의 길이가 짧음</li> <li>◦ 두장의 뿔뿔한 린넨 사용</li> <li>◦ 그 사이에 가는 고래뼈를 삽입하여 바디스를 고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겉감은 2개의 절개선으로 패턴 조각의 수가 적음</li> <li>◦ 초기의 것과 달리 다이어트 효과를 줌</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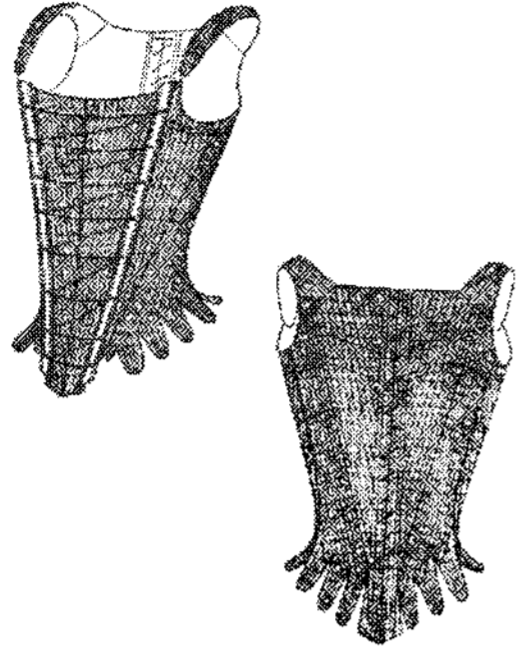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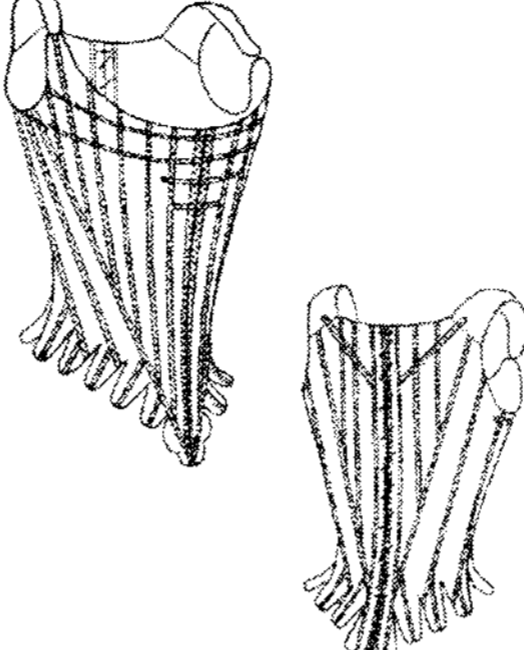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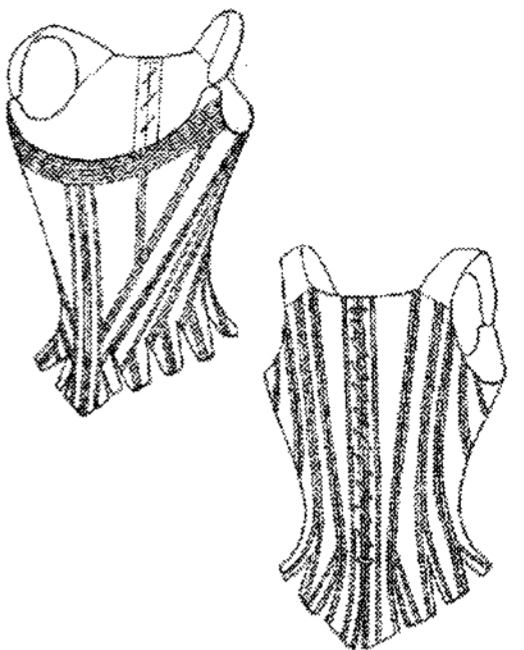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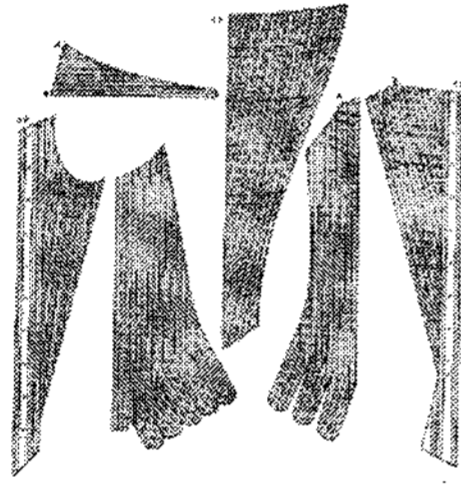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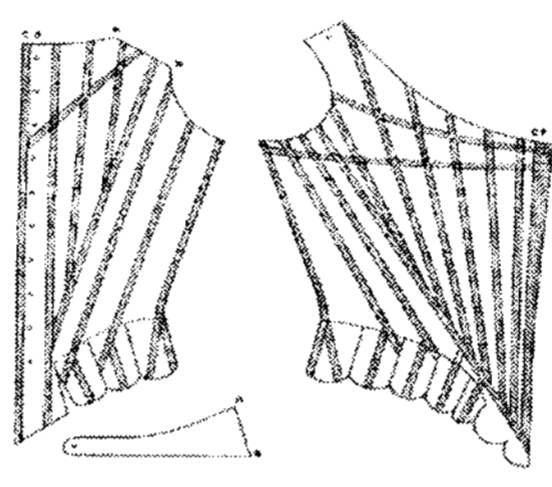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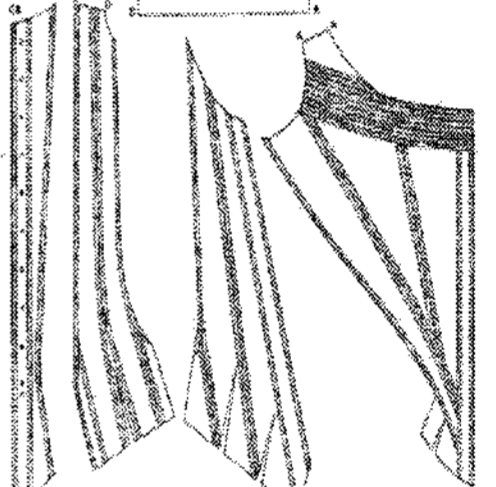
모양을 잡았으며 어깨끈으로 코르셋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였는데 어깨끈은 뒷판과 연결되어 완성 전에 가봉을 통해서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고 앞판에 끈으로 고정하였다. 앞뒤의 네크라인과 진동선에는 심감을 부착하여 강도를 높이고<sup>13)</sup> 심대의 위치를 잡고 케이징(casing)을 만들어 놓는다. 케이징은 위단은 완전히 막고 아랫단끝은 완전히 막지않고 창구멍을 만들어놓는다. 위단 부분을 바이어스 천으로 감싸서 마무리한후에 뼈대를 삽입하고 아랫단을 마무리한다. 창구멍을 통해 뼈대를 넣고 뺄 수 있도록 하고 허리아래에 딸린 드림은 완전한 형태로 제작 후에 코르셋단에 잔 혼질로 고정한다.

중기에 이르러 기술적인 발전으로 보다 효과적인 모양을 위해 뼈대를 바디스에 삽입하고 다양한 모양의 패턴이 만들어졌는데 가장 특이한 사항은 이제까지 가슴의 볼륨감을 위해 세로로만 넣었던 고래뼈를 앞가슴부분에 가로로 삽입하였다. 뿐만 아니라 등을

좁고 평평하게 보이기 위해 어깨뼈에도 사선의 뼈대를 넣은 것이 특징이다. 뼈대의 사용위치가 다양해졌으나 앞쪽에는 사선형의 뼈대를 그대로 사용되었으며 임신부를 위한 옆 여밈도 나타났고 기록에 따르면 완성된 코르셋은 겉을 실크와 부드러운 면으로 감싸고 이를 뜨거운 다림질을 통해 모양을 완성했다고 한다. 겉에서 싸여지는 패턴은 기존의 것보다 약간 크게 재단하고 피부에 닿는 부분은 면으로 처리하였다.<sup>14)</sup>

이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드릴(drill)이라고 하는 두꺼운 능직의 천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이 직물이 두껍고 딱딱한 것에 비해 신축성이 있어 사용되었다고 한다. 고래뼈는 1/4인치폭으로 뼈의 면과 끝을 등글고 부드럽게 가공하여 사용하였는데 뼈대를 넣기 전에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고 뼈대가 들어가는 부분을 봉제하여 둔다.<sup>15)</sup> 시접은 되도록 평편하게 하고 시침질로 깔끔하게 마무리한다. 곡선 처리가 되어있는 부

<표 4> 18세기 corsetry의 특징

	18세기 초기 <sup>16)</sup>	18세기 중기 <sup>17)</sup>	18세기 후기 <sup>18)</sup>
형태			
패턴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르셋 전체에 뼈대가 들어있어 전체적으로 무겁고 딱딱함</li> <li>◦ 앞부분은 레이스 끈으로 스토마커를 고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가슴 부분을 가로 지르도록 뼈대를 고정하여 가슴볼륨을 살림</li> <li>◦ 어깨뼈 쪽에 대각선으로 뼈대를 고정하여 등이 평편하게 함</li> <li>◦ 전체적으로 뼈대를 고무 삼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허리 부분을 가늘고 좁아 보이도록 앞판을 V자로 재단</li> <li>◦ 가슴부분을 강하게 받쳐주기 위해 가로로 뼈대를 촘촘히 고정</li> </ul>

분, 암홀이나 탭스의 가장자리 등은 바이어스 테이프를 만들어 사용하고 앞 내크라인 같은 부분은 버크램(buckram)과 같은 좁은 폭의 바이어스 테이프를 사용하였다.

#### 4) 19세기 코르셋 및 스테이 제작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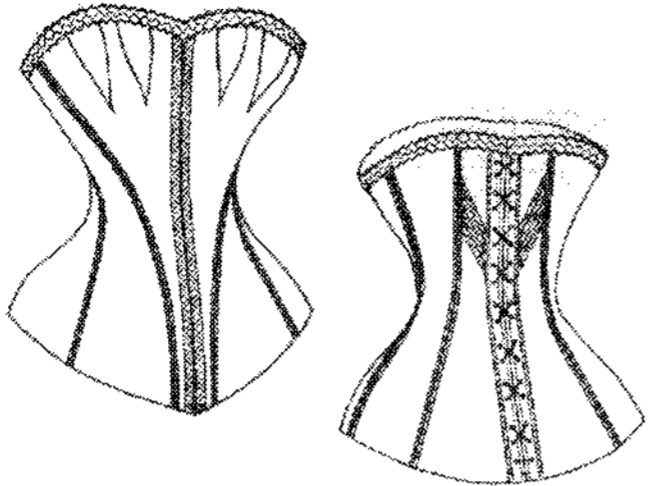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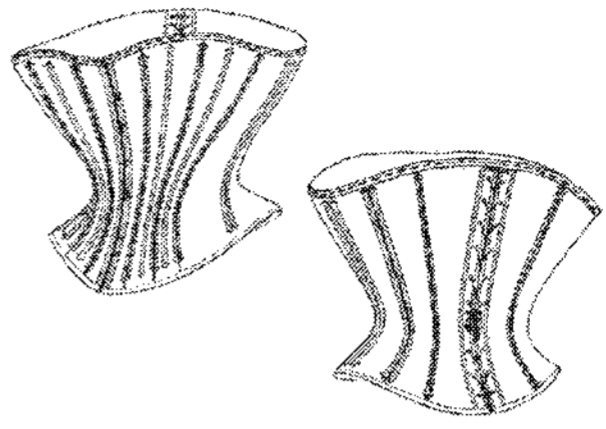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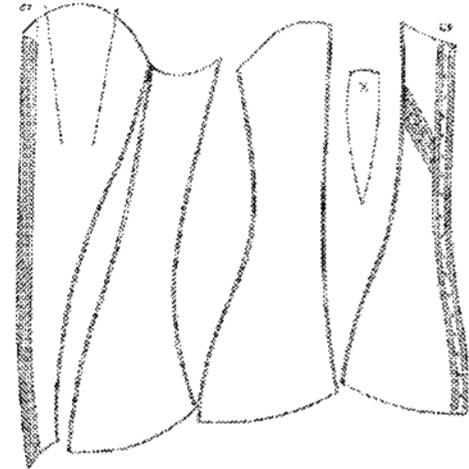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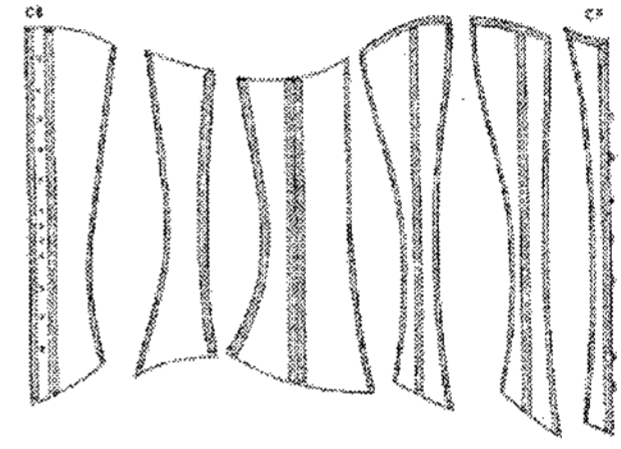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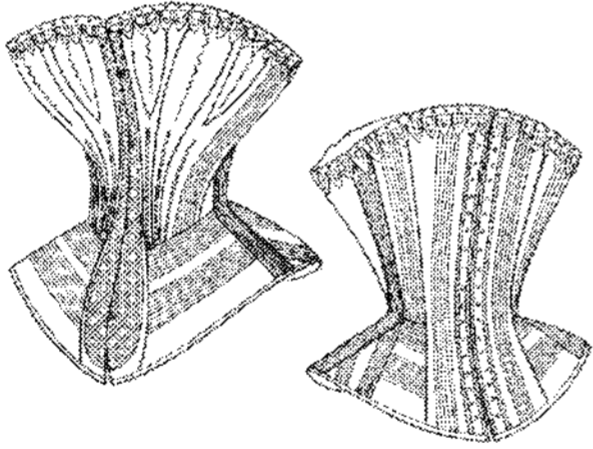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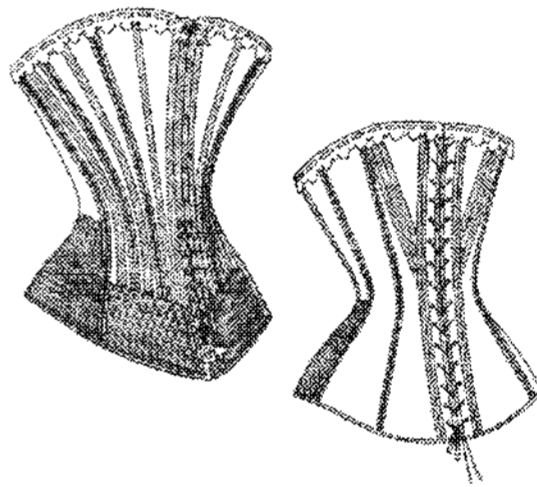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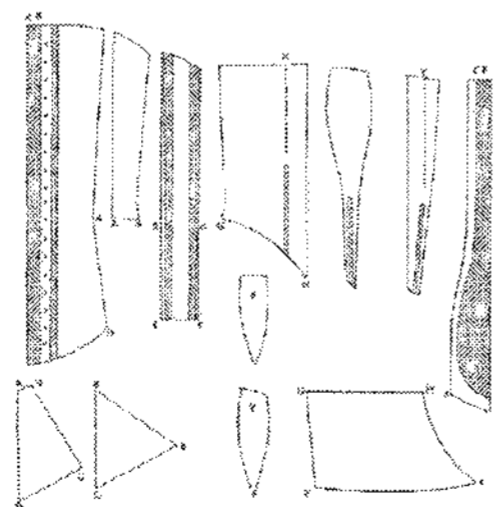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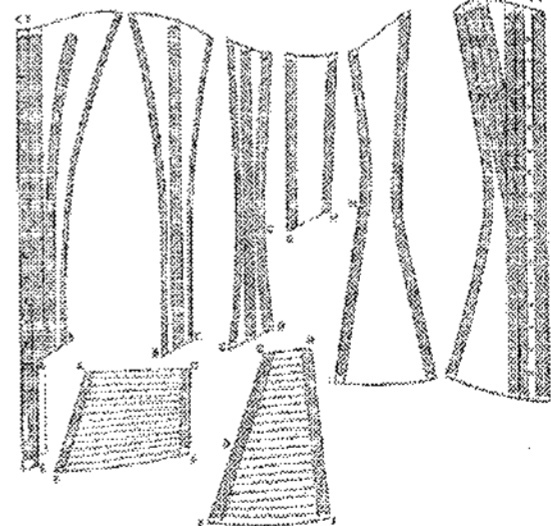
앞 세기와 달리 여성이 신체 곡선을 강조하는 형태의 코르셋이 등장하여 가슴의 곡선과脇의 등근라인을 살리기 위해 거시트를 덧대어 제작하였다. 19세기 전반까지는 어깨끈이 계속 존재하였으나 점차 어깨끈이 없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코르셋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1860년까지는 가내수공업으로 코르셋이 만들어졌으나 점차 패턴과 그 제작 방법이 잡지에 실리기도 하

였다.<sup>19)20)</sup>

엉덩이 아래선까지 길어지던 코르셋은 다시 19세기 중반에는 짧아졌으며 산업적인 발전으로 스틸 아일렛(steel eyelet), 스틸 프론트 버스크(steel front busk)가 사용되었고 다양한 레이스끈도 나타났다. 또한 가벼운 중량의 코르셋을 선호하여 거시트가 없는 코르셋도 보여지고 19세기 말에 이르러서 시작된 버슬 스타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코르셋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sup>25)</sup> 그러나 가는 허리는 계속 지속되어 전체적인 코르셋이 무게와 부피에 비해 허리부분의 부피는 최소화하였으며 점차 신축성 곡선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거시트와 같은 고어(gore)는 반드시 2장의 천 사이에 놓고 촘촘한 박음질로 봉제하는데 그 가장장리를 감치거나 새발뜨기를 하기도 한다. 고어가 달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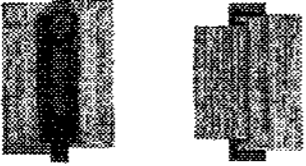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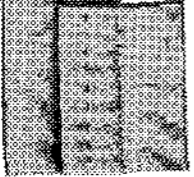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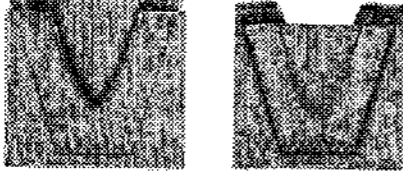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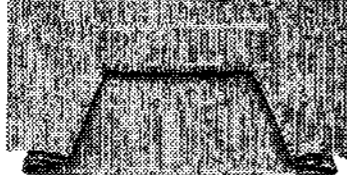
<표 5> 19세기 corsetry의 특징

	19세기 초기 <sup>21)</sup>	19세기 중기 <sup>22)</sup>
형태		
패턴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깨끈이 없는 형태가 많이 나타남</li> <li>◦ 각 패턴의 솔기에 뼈대를 삽입</li> <li>◦ 거시트로 가슴의 볼륨을 살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시트 없이 볼륨감을 나타냄</li> <li>◦ 프렌치 스테이(french stay)라 함</li> </ul>
	19세기 후기 <sup>23)</sup>	19세기 후기 <sup>24)</sup>
형태		
패턴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팀 몰드로 만든 스푼모양의 딱딱한 버스크가 앞 중심에 놓임</li> <li>◦ 뼈대는 경량화 되었으나 코어의 사용량이 많아 무거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축성 내용물을 사용</li> <li>◦ 봉제선과 패턴면의 사이사이에 뼈대를 넣어 몸판을 지지</li> </ul>

부분의 몸판 시점폭은 상당히 작고 좁아서 몸판의 시점을 완성선에 맞추어 접고 그 위에 상침을 하는

형태로 봉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어의 소재는 신축성 있는 철사, 인디안 고무, 신축성 있는 능직을

〈표 6〉 19세기 코르셋 부분 봉제방법<sup>1)</sup>

부분 제작 형태	제작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래뼈 고정 방법</li> <li>시접을 1/3정도 접어 뼈대가 들어가는 부위에 두께감을 주고 한번 봉제</li> <li>그 위에 뼈대의 폭보다 넓은 테이프를 놓고 그 양옆을 봉제</li> <li>뼈대의 공간이 완성되면 뼈대를 밀어 넣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접이 아닌 부분에 사용된 뼈대 봉제 방법</li> <li>뼈대의 케이스를 만들어 그 안에 뼈대를 넣어 끝을 정리</li> <li>몸판에 만들어진 케이스를 놓고 봉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어 봉제 방법</li> <li>코어는 여밈이 있는 부분에 사용</li> <li>보통 고래뼈대의 위쪽에 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접 봉제 방법</li> <li>현시대의 싹솔과 같은 형태로 시접을 정리</li> <li>슈미즈위에 착용하기는 하지만 시접을 평편하게 정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앞판 고어(gore:부) 봉제 방법</li> <li>가슴부분의 거시트나 고어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시접을 접고 접은 끝부분에 가깝게 박음질</li> <li>때에 따라서 촘촘한 감침질이나 새발뜨기를 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힙 고어 봉제 방법</li> <li>고어를 연결하는 방법은 위와 같다.</li> </ul>

사용하고 본 케이스(bone case)도 면으로 만들어 박음질로 고정한다. 어깨끈은 앞판에 버튼을 달아 착장에 편리하게 하였다. 초반에는 밑단에 필요한 분량만큼의 린넨 천을 덧대었고 후반에는 좀 더 좁은 분량을 스티치로 마무리하여 아일렛(eyelet)이나 고래뼈(whalebones)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도 하였다.<sup>26)</sup> 아일렛은 스틸로된 것이 생산되기 전까지는 송곳으로 뚫고 그 구멍을 버튼홀 스티치와 같은 것으로 마감하였으나 그 강도가 강하지는 못하였다.

코르셋의 뼈대를 위해 따로 시접을 만들지 않고 코르셋의 안에서 시접을 정리하여 뼈대를 놓고 겉쪽에서 린넨 테이프로 감싸 봉제하였으며 금속뼈대는 테이프의 앞쪽 끝을 막지 않고 뼈대를 찢러 넣은 후에 잘게 봉제하여 금속대가 나오지 않도록 한다. 밑단에 가까운 아래쪽에 약 1/2인치를 봉제하지 않음으로써 세탁 시에 코르셋의 뼈대를 제거하기 쉽게 하였다.<sup>27)</sup> 거시트와 같은 고어는 겉감과 안감, 2장의 천 사이에 놓고 촘촘한 박음질로 봉제하는데 그 가

장장리를 감치거나 새발뜨기를 하기도 한다. 고어의 소재는 신축성 있는 철사, 인디안 고무, 신축성 있는 능직을 사용하고 본 케이스도 면으로 만들어 박음질로 고정한다. 어깨끈은 앞판에 버튼을 달아 착장에 편리하게 하였다. 초반에는 밑단에 필요한 분량만큼의 린넨 천을 덧대었고 후반에는 좀 더 좁은 분량을 스티치로 마무리하여 아일렛이나 고래뼈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코르셋의 뼈대는 가슴선을 누르지 않도록 가로로 사용하기보다 주로 허리부분을 중심으로 세로방향으로 놓여지도록 하였는데 특히 후기로 갈수록 배를 납작하고 탄탄하게 해주기 위해 코어나 보닝을 앞허리와 아랫배 전면에 대주기도하였다.

패턴의 조각들을 연결할 때 한 쪽 시접을 접어서 봉제하고 그 시접위에 뼈대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 줄 테이프를 놓고 양옆을 봉제한다. 때때로 고래뼈위를 긴 어슷시침으로 고정하기도 한다. 뒤판의 중심은 고래뼈 위쪽에 코드(cord)의 가장자리로 마무리하



여 고래뼈가 나오지 않도록 한다. 여밌부분은 겹쇠 등의 간격과 폭에 맞추어 봉제한 후 겹쇠와 송곳으로 작은 구멍을 뚫은 대를 삽입한 후 이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겹쇠대에 가깝게 봉제한다.<sup>28)</sup>

5) 20세기초 코르셋 제작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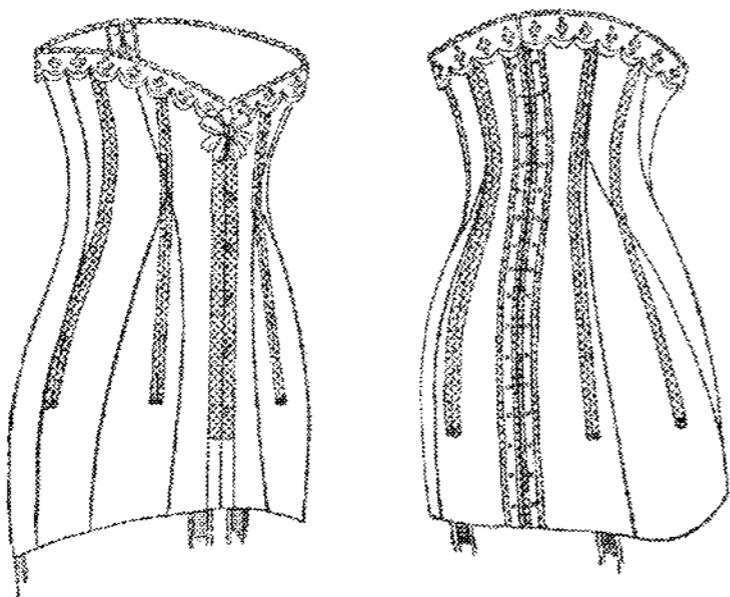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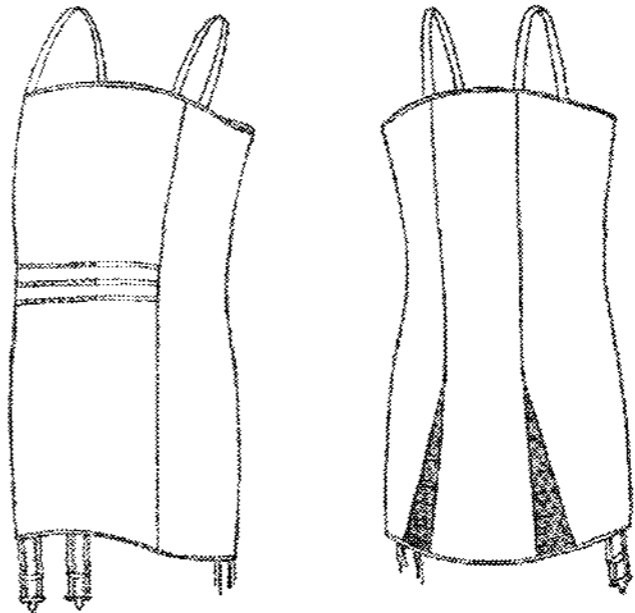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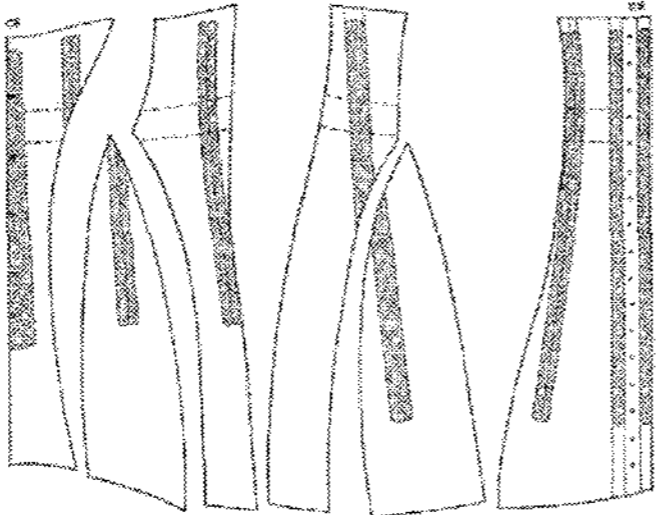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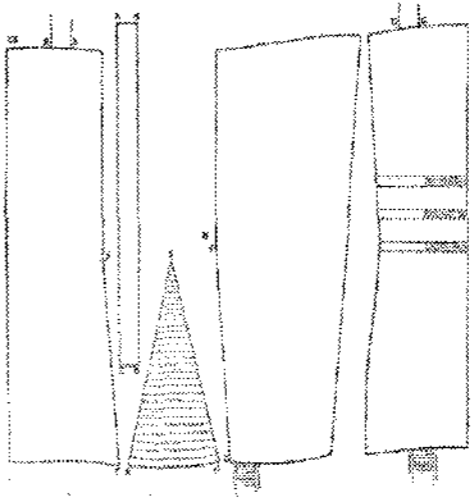
20세기 초는 신체의 변형과 여성의 건강을 해칠 때까지 가는허리와 곡선적인 실루엣이 유행하였으며 코르셋 역시 다양한 패턴의 커팅선과 함께 그 형태도 다양해지고 복잡해졌다. 1910년쯤에 새로운 패션 라인인 스트레이트라인이 유행하면서 패턴의 조각수는 줄고 신축성 소재의 거시트를 사용하여 활동성을 용이하게 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소재의 변화가 뚜렷해지고 스트레이트 라인의 코르셋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의류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가슴을 커버하는 바스트 바디스(bust bodice)와 캐미솔(camisole)이 등장하고 앰파이어 웨이스트라인(empire waistline)이 등장하면서 브래지어가 출현했다. 1911

년에는 고무벨트가 나타나고 얇고 신축성이 있는 소재로 소재가 변화하면서 단추와 훅(hook)으로 여미면서 버스크가 사라졌다.<sup>31)</sup>

코르셋은 좌우를 분리하여 반반씩 제작하는데 패턴자체에 시접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밑단부분은 안으로 꺾여 들어올 부분을 고려하여 1/2인치를 더 길게 재단한다. 허리위치를 정확히 맞추고 시접이 1/8인치 폭으로 봉제하고 시접은 가름솔로 한다. 겹감의 밑단을 접어 1/4인치분량의 안단이 생기도록 하고 이를 평편하게 하기위해 시침 및 다림질을 한다. 안감과 겹감을 안을 맞대고 허리위치가 맞는지 확인한 후 안감의 시접들이 겹친 상태로 배열하고 안감의 시접을 1/8인치씩 접어 안감끼리 촘촘하게 봉제한다. 일반적으로 안감의 패턴은 겹감의 패턴에 비해 약 3/4인치 작게 재단한다. 안감의 밑단 시접을 접었을 때 1/4인치의 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봉제는 하지 않는다.

고래뼈가 들어가는 솔기의 위치에 뼈대의 정확한

<표 7> 20세기초반 corsetry의 특징

	20세기 초기 <sup>29)</sup>	20세기 초기 <sup>30)</sup>
형태		
패턴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축성 소재를 사용</li> <li>◦ 패턴의 조각수가 줄어듦</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축성 소재를 사용</li> <li>◦ 여밌: 왼쪽아래에 훅(hook) &amp; 아이(eye)</li> </ul>

폭을 표시한 후 겹감과 안감을 같이 시침하고 뼈대를 넣어 그 폭이 적당한지 확인 후 재봉틀로 봉제한다. 이 공간이 작으면 뼈대가 들어가지 않고 너무 넓으면 뼈가 휘어진다.

뒤판 중심에 뼈대와 아일렛을 꿰을 위치를 표시하고 시침한다. 두꺼운 린넨이나 캔버스 천을 식서방향으로 1/2인치 폭으로 자르고 이를 반으로 접어 다름질하고 이를 뒷 중심의 가장 끝, 시침한 위치에 최대한 가깝게 넣고 위에서 두 번을 튼튼하게 봉제한다.

앞 중심의 겹·안감 사이에 버스크가 들어가도록 하고 겹쪽에서 한 번에 봉제하는데 버스크의 구멍이 오른쪽 볼록한 부분이 왼쪽에 오도록 한다. 고래뼈는 사용 전에 반드시 양끝을 잡고 트위스트 시켜 뼈대가 뒤틀리는 것을 방지하고 그 끝을 둥글고 부드럽게 정리하고, 철인 경우는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서 뼈대를 완성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 2. 시판 corsetry의 제작방법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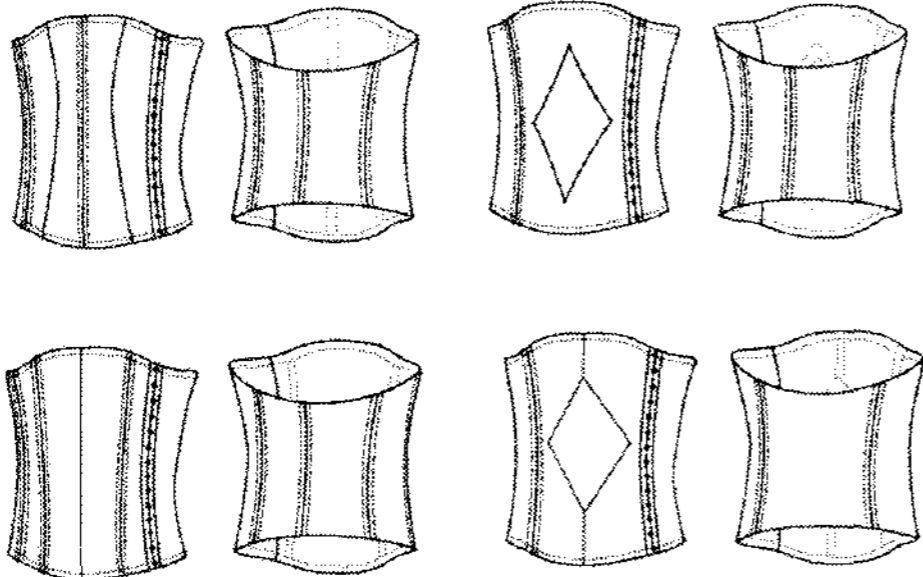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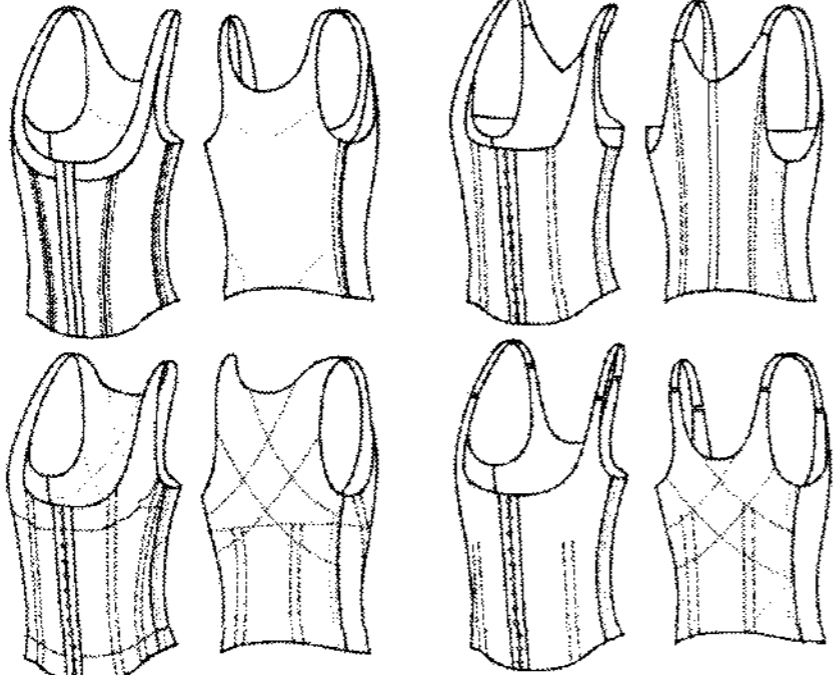
### 1) 웨이스트 니퍼의 구성

웨이스트 니퍼는 허리를 조여주면서 지지해주는 신체 보정용 속옷으로 일반적으로 가슴아래에서 아랫배까지 커버하고 밴드형과 조끼형으로 나누어진다.

#### (1) 밴드형

여밈은 보통 왼쪽 앞에 있으며 과거의 코르셋과 같이 비교적 많은 지지 뼈대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조끼형 니퍼는 4~6개정도의 뼈대를 가지지만 밴드형은 일반적으로 최소 6개의 뼈대를 가진다. 이는 조끼형이 어깨부터 등 전체를 감쌌으므로 넓은 허리를 곧추 세우는데 도움을 주지만 밴드형은 그 자체로만 지지를 해야 하기 때문으로 본다. 웨이스트 니퍼는 앞판이 아랫배를 눌러주기 위해 뒤에 비해 앞판의 길이가 길고 가슴 바로 아래부터 아랫배까지 허리 전체를 조여 준다. 어깨끈이 없어 움직임에 따라 신

<표 8> 웨이스트니퍼의 형태와 특징

	형태	특징
밴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리를 조이고 곧게 펴주는 효과</li> <li>◦ 앞뒤에 4~6개의 와이어를 사용</li> <li>◦ 주로 스틸 본을 사용</li> <li>◦ 업체에 따라 뒤 허리를 두겹으로 하거나 또는 넓은 고무 밴드를 고정하여 흘러내림을 방지</li> <li>◦ 디자인에 따라 앞쪽의 배를 눌러주기위해 2겹을 덧대기도 함</li> </ul>
조끼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중심에서 여밈</li> <li>◦ 여밈방법은 지퍼 또는 후크 앤 아이</li> <li>◦ 브래지어의 아래에서 가슴을 한번 더 받쳐주는 효과</li> <li>◦ 착용감이 안정적</li> <li>◦ 뒤통판을 곧게 펴주는 효과</li> <li>◦ 등 전체를 감싸는 것과 캐미솔형으로 나누어짐</li> </ul>

체에서 흘러 내려가는 불편함이 있다. 업체에 따라 흘러내리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허리에 2인치정도의 고무 밴드를 가로로 길게 대어 주거나 신축성이 강한 파워 네트를 2겹으로 덧대어 있다. 와이어는 앞판과 뒷판 각각 2~3개씩 놓여져 있으며 옆선 연결선 없거나 또는 옆선의 연결선이 있는 것도 있다. 앞판의 와이어는 앞중심과 옆선을 약 3등분한 위치에 고정되고 원편의 2번째 와이어는 여밈 밴드가 이를 대신해 준다. 여밈밴드에는 와이어를 기존의 강한 스틸본(steel bone)이 아닌 일반 봉제형 와이어나 두꺼운 심지를 사용한다. 뒷판은 뒷중심 그리고 옆선과 뒷중심의 2등분 되는 부분에 고정되어 있다. 와이어는 능직의 천으로 덧대어져 봉제되고 윗단과 밑단은 고무 밴드로 봉제되어져 있으며 앞판은 2겹의 스트레치 소재와 장식 겹 강도 보강을 위한 레이스까지 3겹으로 되어있으나 뒷판은 주로 1겹으로 되어있으며 허리부분의 보강을 위해 가장 가는 허리부분은 2겹으로 되어 있다. 니퍼에 사용되는 와이어는 나선형의 스틸본을 사용하는데 그 끝은 둥근 U자형 팁(tip)을 끼워 천을 뚫고 나와서 신체에 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한다.

## (2) 조끼형

조끼형은 어깨끈이 부착되어 있으며 브래지어를 착용한 상태에서 덧입는 것으로 가슴아래를 받쳐주면서 허리를 조여 주는 역할을 한다. 밴드형이 가슴아래부터 아랫배까지 조여주고 지지해주는 효과만을 가지다면 조끼형은 가슴을 받쳐주고 등을 바로 펼 수 있도록 하는 효과와 밴드형의 경우 등의 니퍼 위 부분에서 생기는 불룩한 살을 정리해주는 효과도 있다.

여밈은 앞중심에서 여며지고 제조업체에 따라 지퍼 또는 걸고리로 여밈단이 되어 있다. 걸고리 여밈은 3단으로 되어있어 자신의 체형에 맞추어 여밀 수 있으며 여밈단은 탄성소재를 사용하기보다 보다 견고하고 신축성이 없는 소재를 사용한다. 특히 걸고리가 부착된 여밈단 쪽은 강한 압력을 받으므로 심지를 부착하여 좀 더 탄탄하게 한다. 앞중심은 좌우가 겹쳐지고 또한 여밈 부분이므로 와이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복부와 등을 탄탄하게 지지하기 위해 앞쪽과

뒤쪽에 와이어가 삽입되어 있다. 와이어의 위치와 사용 개수는 업체마다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앞과 뒤의 2개씩 사용한다. 또한 뒷판의 어깨와 옆 허리선을 연결하는 패턴을 X형으로 교차시키고 이를 뒷판에 덧대어 등을 곧고 바른 자세로 유지하도록 하여 체형 교정에도 도움을 준다. 어깨끈은 올인원과 마찬가지로 탄성 있는 소재를 사용하며 자신의 체형에 맞도록 길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조끼형 니퍼는 브래지어 착용으로 생기는 상체 라인을 정리해 주고 바른 자세를 유도하지만 속옷을 덧입음으로서 생기는 온열감을 줄이고자 다른 보정용 속옷에 비해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소재를 사용한다. 신체 상부를 전체적으로 감싸주기 때문에 봉제되지 않는 플라스틱 와이어와 스틸본 모두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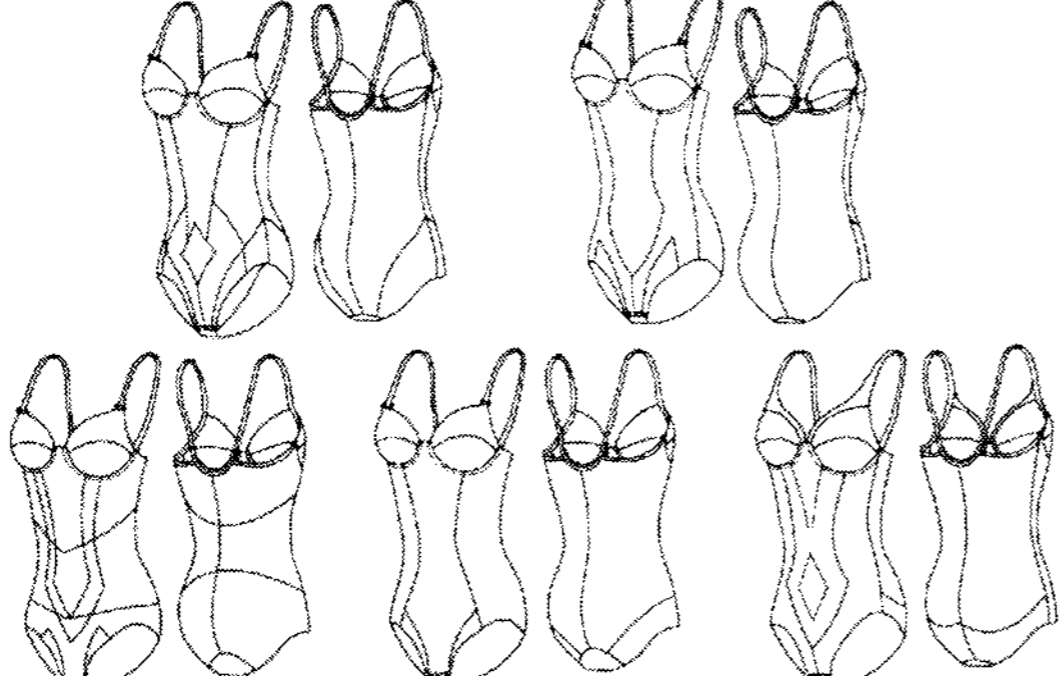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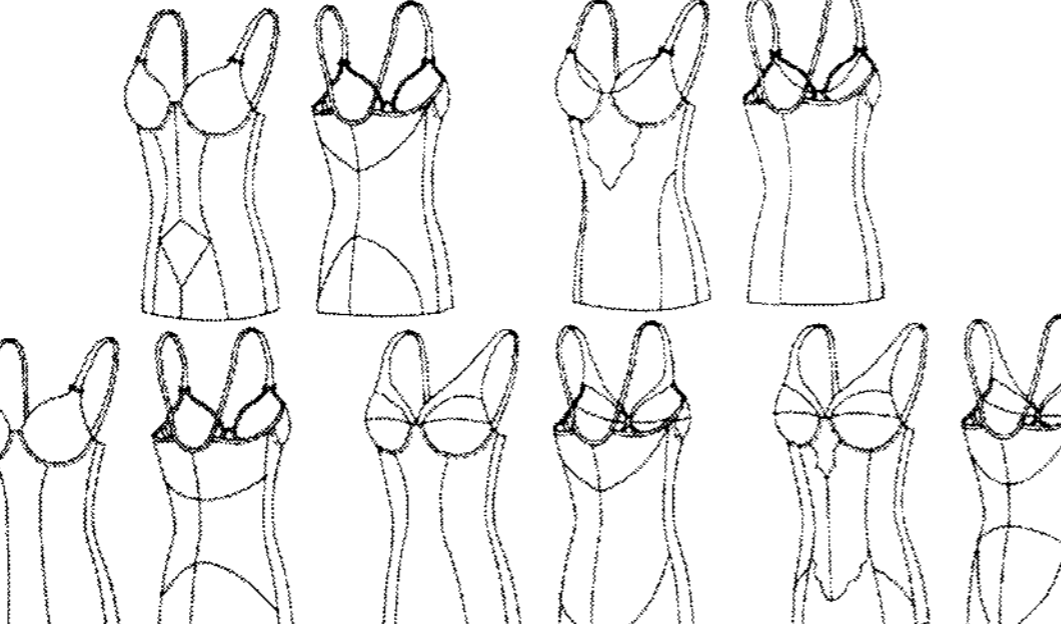
과거에는 소재에 제한으로 능직의 뻗뻗한 천을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스트레치성 소재와 파워 니트 등을 사용하여 활동에 불편함 없이 착용할 수 있다. 강하게 조여져야 하는 부분은 2겹의 탄성소재를 사용하여 신체보정의 효과를 높이고 와이어는 주로 금속을 사용한다. 따라서 금속의 와이어는 부직포로 싸여져서 와이어의 양옆이 봉제된다.

## 2) 올인원의 구성

올인원은 브래지어, 코르셋, 짧은 거들이 하나로 이어진 원피스형태의 속옷으로 바지 웨이퍼라고도 불리어진다. 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스트레치성 소재의 사용과 패턴의 분할로 신체 보정 효과를 준다. 가슴을 감싸는 부분은 가슴 바로 아래, 가슴을 모아주는 U자형 와이어가 들어있으며 이는 부드러운 기모가 있는 테이프로 감싸여 몸판의 패턴에 봉제된다. 업체에 따라 가슴 컵부분이 무봉제나 또는 봉제형으로 나누어지며 또한 볼륨패드 사용의 유무를 착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인원은 엉덩이 전체를 감싸는 형태이므로 착용 후에 팬티 라인선을 생기지 않도록 앞 고관절부위를 깊게 파거나 또는 파지 않고 넓고 신축성이 좋은 레이스를 사용한다. 뒷판의 경우는 엉덩이 아래선까지 커버하는 스타일이 일반적인데 밑아래에서 여미지않는 원피스형과 밑아래서 여미는 바디수트형이 있다.

〈표 9〉 올인원의 형태와 특징

	형 태	특 징
바디 수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래지어와 니퍼, 숏거들이 하나로 연결</li> <li>◦ 가슴은 봉제형과 폴드형이 주</li> <li>◦ 가슴아래에 U자형 와이어가 일반적</li> <li>◦ 전체적으로 다양한 스트레치 소재를 2겹 이상 사용하여 몸매를 보정</li> <li>◦ 뒷면은 그 기능에 따라 엉덩이라인을 보전하도록 다양한 형태를 보임</li> <li>◦ 주로 허리와 복부를 강하게 조이는 기능을 가짐</li> </ul>
원피스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슴아래에 U자형 와이어</li> <li>◦ 옷이 밀려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슴 아래에 매쉬 소재로 활동성 부여하는 것이 많음</li> <li>◦ 앞중심과 뒷판을 2겹으로 하여 보정 효과를 높임</li> <li>◦ 팬티라인 선이 생기지 않음</li> <li>◦ 엉덩이 선을 살리기 위해 엉덩이부분에 2겹 또는 약간의 잔주름을 잡음</li> </ul>

원피스형은 여밈이 따로 없이 엉덩이 라인선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데 스커트를 입을 때 용이하며, 밀려오기 때문에 여미는 형은 바지나 스커트 양쪽모두에 적합하며 말려 올라가는 것을 방지해준다. 엉덩이의 둥근 곡선을 살리기 위해 엉덩이의 뒷중심에 개더를 잡아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다 강한 보정효과를 위해 허리 옆선과 아랫배 부위는 두 겹의 스트레치소재를 쓰거나 좀 더 강하고 탄탄한 소재를 쓰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앞보다는 엉덩이부분을 감싸기위해 뒷판의 길이가 약간 길게 제작되어있다.

또한 업체에 따라 올인원이 한 장으로 연결된 특성으로 인해 가슴 컵 바로 아래에 탄성 매쉬를 넣어 손을 올렸을 때 올인원이 따라 올라와 활동에 불편함을 감소하도록 한 스타일도 있다. 패턴은 신체 보정부위와 사용 소재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주로 배를 강하게 눌러주고 허리선을 앞과 뒤에서 깔끔하게 정리되도록 패턴을 절개하거나 신축강도가 다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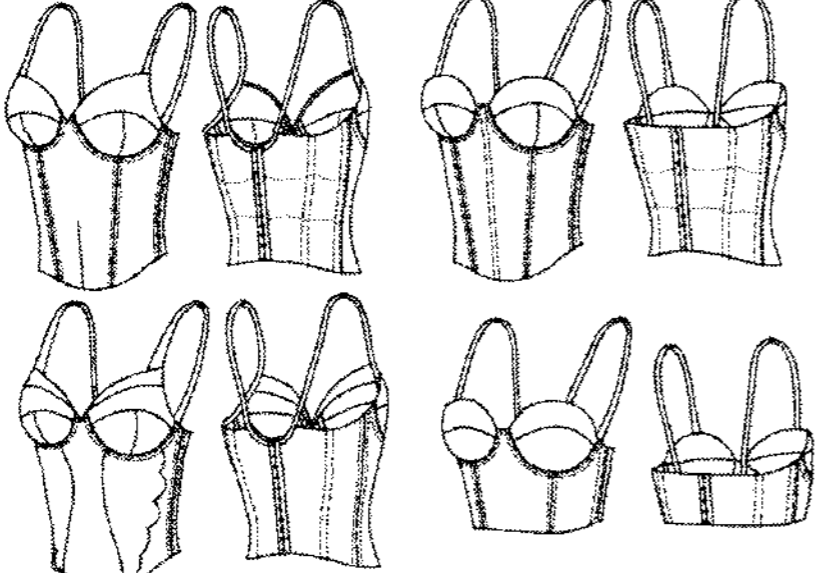
소재를 겹으로 사용한다. 패턴이 단순한 경우 착용 후 활동감이 좋으며 패턴이 복잡하고 보다 다양한 소재를 사용한 경우는 신체 보정효과가 크다.

일반적으로 보정 속옷용의 소재는 얇고 울이 풀리지 않아 시접분량이 적고 시접부분을 펼쳐서 겹친 채로 봉제하여 속옷의 두께를 줄이고 지그재그 봉제로 소재의 신축성을 유지한다. 강도가 필요한 부분의 솔기는 부직포나 고무 테이프를 덧대어 봉제되는데 활동성에 제한을 주지 않기 위해 진동둘레에는 신축성이 있는 고무 테이프를 사용하고 밑단의 경우는 폭이 넓은 레이스나 넓은 밴드를 사용하여 강하게 조이지 않으므로써 속옷의 라인이 겉옷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3) 니퍼브라의 구성

브래지어와 짧은 니퍼가 연결된 형태로 가슴과 허리부분을 커버하는데 가슴을 모아주는 U자형 와이어

<표 10> 니퍼브라의 형태와 특징

형 태	특 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래지어와 니퍼가 연결된 형태</li> <li>◦ 업체에 따라 뒷중심 또는 앞중심에서 여밈</li> <li>◦ 가슴아래에 U자형 와이어</li> <li>◦ 몸판에 6개의 직선와이어</li> <li>◦ 스틸 본을 주로 사용</li> <li>◦ 신체 보정용과 드레스 착용목적으로 사용</li> <li>◦ 어깨끈 착용 가능</li> </ul>

가 가슴 바로 아래에, 직선 와이어가 양 옆선과 가슴 아래 견갑골아래에 세로로 놓여져 허리를 탄탄하게 지지하고 조여 준다. 슬립형의 올인원보다는 길이는 짧지만 웨이스트 니퍼의 길이와 비슷하거나 약간 짧다. 니퍼브라는 캐미솔 슈에피 또는 롱브라라고도 불리어지며 신체 보정용으로 또는 파임이 깊은 드레스 착용시에 주로 착용하는 아이템이다.

가슴을 받쳐주고 허리를 조여주는 것이 그 기능인데 위가슴에서 앞 중심을 향해 사전의 스트레치 레이스를 덧대고 가슴아래를 세로로 절개하고 그 시점에 와이어를 부착한다. 옆선은 많은 강도를 요구하므로 짝솔로 봉제한 후 와이어를 댈다. 길이가 짧은 니퍼브라의 경우는 아랫배를 눌러주는 기능이 없어 한 가지 소재로 전체를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레이스를 사용하는 것은 장식적인 목적이 크다. 일반적인 여밈은 일반 브래지어와 같이 뒷중심에 있으며 좌우 뒷판은 한 장의 스트레치 소재로 제작하고 허리와 같이 많은 조임이 필요한 부분은 2중으로 처리하였다.

뒷판의 와이어는 완성된 상태에서 좌우 허리부분의 2등분되는 곳에 와이어를 위치시킨다. 각각의 와이어는 걸감과 와이어를 감싸는 신축성 테이프 사이에 놓여 지며 테이프의 양옆이 봉제됨으로서 와이어가 고정되다. 진동 둘레를 따라 1cm폭의 탄성 테이프가 밑단을 따라 지그재그봉제로 되어있으며 각각의 와이어는 단의 끝까지 위치해 있으며 걸감을 안쪽을 접어 그 끝을 감싼다.

여밈은 다른 니퍼류와 같이 사이즈 조절을 위해 3

단으로 되어있으며 걸고리가 봉제되어있는 부분이 심지를 덧대어 좀 더 탄탄하고 두껍다. 신체에 직접 닿는 여밈 부분은 특히 부드러운 부직포로 덧대어져 있다. 또한 착용을 용이하게 하기위해서 앞에서 여미는 형태도 보여지는데 배 부분의 매끈한 라인을 위해 걸고리와 지퍼를 사용하는 2중 여밈도 있으며 앞쪽보다 뒤쪽의 패턴의 길이가 약간 짧다.

## V. 결론

16세기말부터 시작된 코르셋은 현대에 와서 그 기능과 특성에 따라 웨이스트니퍼, 올인원, 니퍼브라 등으로 발전 변화되어왔다. 코르셋과 현대의 파운데이션은 몸매 보정의 효과를 위한 하나의 도구이며 여성을 보다 매력적으로 보여 지는데 일조를 함으로서 그 시대의 유행경향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요소이다.

르네상스 시대에서부터 1910년대까지의 코르셋은 신체의 변형과 구속이 심하고 상당한 무게와 혼자서는 착용할 수 없는 것이었으나 현대의 것은 신체의 자연스런 곡선을 유지하면서 몸매 보정 효과를 목적으로 하며 착용이 간편할 뿐 아니라 가볍고 얇다는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16세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코르셋류의 제작방법을 비교하면 이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진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와이어를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필요한 위치에 공간을 만들어 삽입하거나 또는 와이어를 놓고 그 위에 천 테이프를 겹친 상태에서

와이어의 바깥쪽 천을 봉제하여 고정한다. 와이어의 재료는 다르지만 그 끝을 둥글고 부드럽게 만든 것을 사용하고 그 길이는 실제 패턴보다 약간 짧게 제작한다. 일반적으로 패턴과 패턴이 연결되는 봉제선에 와이어가 주로 놓이는데 시접을 되도록 납작하고 깔끔하게 처리하여 시접의 두께를 최소화하고 와이어를 패턴 면에 고정할 때에는 와이어를 케이스 안에 넣고 양옆을 봉제한다. 와이어가 천 케이스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방지하도록 와이어의 양끝을 촘촘히 바느질하거나 그 끝이 옷의 단에 맞닿을 경우는 다른 테이프나 걸감으로 한번 더 감싸 봉제한다.

또한 좀 더 입체적인 실루엣을 만들기 위해 패턴을 다양하게 절개하고 특히 가슴의 볼륨을 살리기 위해 거시트라고 하는 무를 사용하고 평직이 아닌 능직의 천을 사용함으로써 신축성있는 소재를 선호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현대의 파운데이션 가멘트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다양한 신소재의 등장과 와이어의 개발로 와이어와 코르셋천의 내구성이 좋아져 와이어의 사용량이 줄고 세탁 시에도 이를 제거할 필요가 없어져 밑단의 와이어 창구멍이 사라졌다. 다양한 스트레치 소재의 발달이 와이어와 코어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고 여밈 방법 또한 단순화되어 혼자서 착탈이 가능하고 개인의 신체사이즈에 맞도록 조절이 용이해졌다. 또한 소재의 특성에 적절한 실과 봉제형태가 다양해지고 시접풀림이 거의 없는 소재의 특성으로 시접처리법은 단순화되었으나 20세기이전의 코르셋은 소재의 한계로 좀 더 섬세한 바느질이 요구되었다. 가봉을 통해 사이즈를 맞추고 정확한 위치에 아일렛을 뚫던 어깨끈도 탄력 있는 고무 소재로 바뀐 것은 물론 길이조절이 가능해짐으로 가봉 과정없이 대량생산이 가능해졌다.

16세기 이후에서부터 현대까지 이어진 코르셋 제작방법의 비교는 다양한 제작방법의 발달과정을 고찰함으로써 현 방법의 이해를 돕고 역사적 의상을 제작하거나 또는 새로운 방법의 시도로 의복 구성 제작법을 한 단계 나아가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전해정, 김지연 (2003). 20세기 코르세트리의 구성 및 제작기법. 복식문화연구, 7(4), p. 105.
- 2) 김경희 (2003). 르네상스 후기의 Corset 제작에 관한 연구. 패션비즈니스학회지, 7(1), pp. 152-150.
- 3) 윤진아 (2006). 여자속옷의 걸맞화 현상과 패턴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10-14.
- 4) Willet, C., & Cunnington, P. (1992). *The History of Underclothes*. New York: Dover Publications, INC
- 5) Doyle, R. (1997). *Waisted Effort*. Halifax: Sartorial Press Publication. p. 57.
- 6) Waugh, N. (2000). *Corsets and Crinolines*. New York: Routledge/Theatre Art Books, pp. 19-21.
- 7) Hart, A., North, S. (1998). *Fashion In Detail*. New York: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s Inc. p. 12.
- 8) Ambrose, B. H. (1997). *The Little Corset Book*. Hollywood: Costume & Fashion Press
- 9) Waugh, N. *op. cit.*, p. 37.
- 10) *ibid.*, p. 18.
- 11) *ibid.*, p. 20.
- 12) *ibid.*, p. 38.
- 13) Ambrose, B. H. *op. cit.*, p. 34.
- 14) Waugh, N. *op. cit.*, p. 41.
- 15) Johnston, L. (2005). *Nineteenth Century Fashion in Detail*. London: V&A Publications, p. 144.
- 16) Waugh, N. *op. cit.*, p. 39.
- 17) *ibid.*, p. 40.
- 18) *ibid.*, p. 42.
- 19) *ibid.*, pp. 75-79.
- 20) Doyle, R. *op. cit.*, pp. 123-127.
- 21) Waugh, N. *op. cit.*, p.77.
- 22) *ibid.*, p. 78.
- 23) *ibid.*, p. 80.
- 24) *ibid.*, p. 81.
- 25) Köhler, C. (1968). *A History of Costume*. New York: Dover Publication, INC.
- 26) Steele, V. (2001). *The Corset*. Yale University Press.
- 27) Grimble, F. (2001). *Reconstruction Era Fashions*. San Fransico: Lavolta Press, p. 348.
- 28) Ambrose, B. H. *op. cit.*, pp. 18-20.
- 29) *ibid.*, p. 86.
- 30) *ibid.*, p. 90.
- 31) Waugh, N. *op. cit.*, p. 87.